

# 보도설명자료

('22. 8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전해체산업에 '뒷짐'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, 원전해체 산업 육성정책은 차질없이 진행중임

(8.4일자 국제신문 「尹정부, 고리1호기·원해연 등 원전 해체 산업에 '뒷짐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## 1. 기사내용

- 정부의 원전해체 정책 차질 및 원전해체연구소의 기능격하 우려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원전해체산업에 '뒷짐'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
- 정부는 이미 2차례('15.10, '19.4)에 걸쳐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고 원전해체연구소 설치, R&D 예타 추진 등을 이행 중
  -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 R&D 예타 통과(3,481억원)와 별도로 공공기관 출연금(1,934억원)을 확보하여, 부지 확보, 시설 설계 및 지자체 인허가가 모두 완료되었음
  - 아울러, 예타 통과를 기반으로 장비구축비를 확보함으로써, 해체 산업 연구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함
  - 한편, 고리 1호기는 원전해체 계획서 제출('21.6) 이후 원안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일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원전 해체를 추진 중
- 앞으로도 산업부는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등 인프라 구축, R&D 예타 통과에 따른 해체분야 핵심 기술 적기 확보 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,
  - 과기정통부, 지자체(부산시, 울산시, 경북)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

※ 문의 : 원전환경과 박상희 과장(044-203-4830), 차찬석 주무관(044-203-5342)